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공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

국립극단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 청소년극
2022 발가락 육상천재

작
김연주

연출
서충식

공연 기간
2022.11.03(목) -
2022.11.27(일)

공연 장소
소극장 판

주최/제작
국립극단



번호준 (남, 12)

나는 자갈초 육상부. 나는 관심 받는 게 좋아. 육을 해서라도, 땀을 싸서라도, 춤을 춰서라도, 달리기를 해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 그 중에 달리기를 가장 잘하지. 아니. 잘했었지. 전학생 박정민한테 1등 뺏긴 뒤로 달리는 게 싫어. 박정민 등만 보고 달릴 바에 안 달릴래. 재미없어.

박정민 (남, 12)

나는 자갈초 육상부. 자갈초로 전학 오자마자 1등을 했지. 난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야. 앞으로 제일 높은 곳으로만 올라갈 거야. 난 타고난 육상천재니까 다 할 수 있어. 비결이 뭐냐고? 난 긴 발가락을 타고났거든. 나보다 발가락이 긴 사람은 없을걸?

김상우 (남, 12)

나는 자갈초 육상부. 난 어중간한 3등. 이번 생은 끝렸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열심히 해봤자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1등만 하던 번호준이 박정민한테 밀린 걸 보니까 씁통이야. 근데 박정민보다 빠른 사람이 나타날까?

이은수 (남, 12)

나는 자갈초 육상부. 난 맨날 꼴찌야. 꼴찌여도 달리는 게 좋아. 달리면 얼굴에 닿는 바람이 시원하잖아. 아주 가끔은 내가 1등을 하면? 이라는 상상을 해. 웃기지? 맞아. 맞아. 웃겨.

인어 (남, 12)

나는 사람도 물고기도 아니야. 그럼 뭐냐고? 나도 몰라! 육지에 올라온 나는 이제 어찌지? 바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바다의 짙은 가득한 자갈초등학교의 유일한 운동부로 육상부가 있다. 남자 육상부에는 독보적인 1등 호준, 2,3등만 아슬아슬하게 하는 상우, 맨날 꼴찌만 하는 은수가 있다. 정해진 등수대로만 흘러가던 육상부에 큰 지각변동이 생긴다! 준수한 외모, 타고난 피지컬, 스포츠맨 정신까지 갖춘 전학생 정민의 등장 때문이다. 정민이가 육상부의 새로운 1등이 되면서 육상부는 소란스럽다. 육상부의 소란을 비웃으며 호준은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 학교 신기록을 세워 기세등등한 정민이를 본 호준은 자신이 인어에게 발가락을 잡아먹히는 바람에 달리지 못한다고 육상부 아이들에게 말한다. 인어라는 말에 솔깃한 육상부 아이들은 호준을 앞장세워 호준의 발가락을 잡아먹은 인어를 잡으러 짙은 바닷가로 향한다.

At the Pebble Elementary School where you always get a whiff of the salty sea breeze, there is only one school sports team, the track and field team. In the team, Hojun has always been the best by far, and Sangwu the second or third, and Eunsu the last. With no changes to their rank, everything has been business as usual until someone transfers to their school: Jeongmin. He is good-looking with inborn athletic abilities, not to mention being a great sportsman. When Jeongmin becomes the number one in the school track and field team, things become topsy-turvy. Belittling his teammates' reaction, Hojun decides not to run anymore. Seeing Jeongmin bragging after setting the new school record, Hojun tells the track and field teammates that he can't run anymore because a mermaid ate his toes. Intrigued by his story, everyone in the team heads to the beach with Hojun to catch the mermaid that ate his toes.



김기현 Kim Ki-Hun

배역 이은수

연극 <2020 발가락 육상천재> <어른 동화>

뮤지컬 <닥터그린>



박창욱 Park Chang-Wook

배역 인어

연극 <2020 발가락 육상천재> <A, 아이> <신신방>

<공간, 기억, 사람-극장편> <내일 바다에>



류석호 Ryu Seok-Ho

배역 김상우

연극 <하늘로 간 청춘팔> <분만실> <2020 발가락

육상천재> <소는 누가 키우고 논문은 누가 쓰나>

영화 <강생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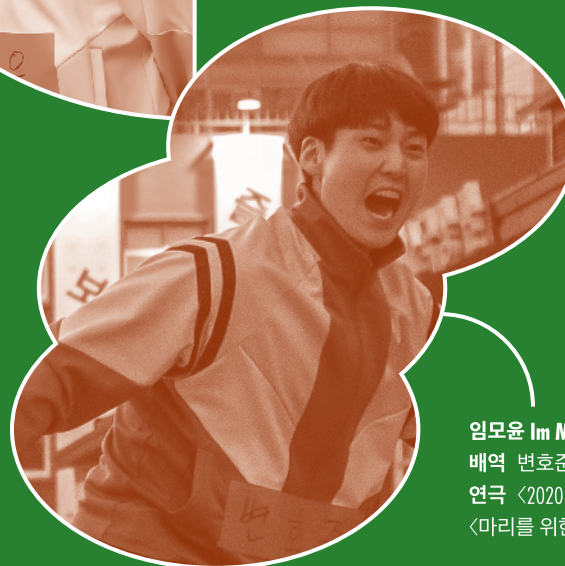
방송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이창민 Lee Chang-Min

배역 박정민

데뷔작



임모윤 Im Mo-Yun

배역 변호준

연극 <2020 발가락육상천재> <붉은머리안>

<마리를 위한 아주 사소한 결정> <이장>



작가 김연주 Kim Yeon-Ju

주요작품

각색 <자전거도둑 헬멧을 쓴 소년>

작·연출 <육시내고향> <양질의 단백질>

숨이 턱 끝까지 찰 때까지 달려봐도 결국 남의 등만 보고 끝나버릴 때가 있다. 그 등에 대고 침을 뱉고 싶지만 뱉으려던 침을 삼키고 다시 뛰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제치고 1등을 한 친구에게 재수없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삼키며 쿨하게 패배를 인정하기도 해야한다. 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쿨해지기까지 해야한다. 스포츠맨십, 그거 참 어렵다. 12살 호준이의 첫 패배는 쿨하지 못해 용광로처럼 들끓는다. 패배감, 승부욕, 진심, 거짓말이 뒤섞여 터지기 일보 직전의 용광로에서 인어가 튀어나온다. “뭘봐. 인어 처음봐?” 호준이는 처음 마주한 인어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2살을 만들고, 12살을 매일 만나는 사람들

- 서충식 연출가 + 협력학교 김은빈, 이우정 선생님 이야기

(김미선/프로듀서 *이하 김미선) 얼마 전 미니운동회와 2차 오픈리허설은 어떠셨어요?

※이번 <발가락 육상천재> 프로젝트는 지역공연과 서울공연을 분리하여 두 차례 오픈리허설을 진행함.

(김은빈/양지초 교사/협력학교 *이하 김은빈) 일단은 경기가 너무 재미있었고요. 1차 오픈 리허설에 갔던 친구들은 뒤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반에 인어 탈을 써본 친구가 있거든요, 인어 탈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렵지 않을까 했더니 그림을 그려 갖고 왔더라고요. 1차 오픈 리허설을 본 친구들이 ‘호준이’를 살짝 미워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호준이’가 별로 밉지가 않았대요.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구나 싶었고, 공연을 봤을 때 캐릭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더 궁금해졌어요.



서충식(연출)

(서충식/연출 *이하 서충식) 배우들이 7월부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시기인데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얻는 것도 많았고 고맙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항상 연습하기 전에 놀이 같은 것을 통해서 청소년성을 회복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청소년들과 같이 하니깐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 날 청소년들이 작품에서 나오는 유행어를 요즘은 안 쓴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배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볼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우정/청구초 교사/협력학교 *이하 이우정) 친구들 텐션도 높고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날 두 명이 몸살이 나서 학교에 못 왔어요. 다녀온 친구 중에서 몇몇이 일기를 써서 보여줬는데 ‘우리 어린이들 왜 이렇게 어른들(배우)이 이기려고 하지?’, ‘오픈 리허설로 보여주신 20분이 자기한테는 2분 같아서 나중에 공연이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보러 가는 날 달력에 표시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서충식 ‘인어’에 대해서 혹시 낯설어 하지는 않았나요?

이우정 그렇지 않았어요. ‘인어랑 좀 더 친해지고 싶다. 저 친구랑 얘기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상상의 것들에 빨리 몰입하고 친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인어가 이질적이고 판타지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김은빈 인어를 많이 좋아했어요. 미니운동회때 저

희 반 친구 절반이 ‘인어’를 맡은 배우(박창욱)랑 같은 팀이었고 몇몇 친구들만 다른 팀이었거든요. 다른 팀 친구들도 자기도 인어랑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야기가 판타지이고 나랑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캐릭터가 있구나’ 하고 존재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이야기에 빨리 몰입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서충식 저희는 모든 이야기와 서사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에 익숙하고 논리적인 이야기 구조로 장면을 만들어 가는데 아이들이 놀 때 보면 다 논리적으로 이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순간에 집중해서도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장면을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날 아이들하고 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약간 고착돼 있는 장면 만들기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엉뚱하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오늘 말에 힘을 얻어서, 저는 **연출로서 궁금한 게 우리 두 분 선생님들은 12살 청소년을 오랫동안 봐오셨잖아요. 청소년들의 변화가 시기별로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참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우정 국립극단에서 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12-13세 초등학교생의 경우는 소외되는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청소년극 <영지>도 그렇고 이 친구들을 이해하려는 폭들이 넓어진 것이 좀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전에 보여주셨던 청소년극이 번역극이나 외국의 정서들이 많이 들어온 청소년극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빈 저는 청소년극이 어떤 ‘특별한’ 청소년들

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청소년인데 비행 청소년이 아닌 그냥 12세 소년들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이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것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험 떠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2020년 <발가락 육상천재> 초연때 온라인 생중계를 같이 봤는데 그때 생각보다 남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글을 잘 쓰지 않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날은 일기에 감상을 크게 써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손서희/교육감독 *이하 손서희) 두 분 다 6학년 담임이시잖아요. 실제로 두 분이 만나는 12살과 <발가락 육상천재> 자갈초의 12살이랑 비교하면 어떠세요?

이우정 1학년년부터 6학년까지 1년마다 달라요. 5학년 친구들은 6학년 중에서도 어린 친구들의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크고, 약간 허세 있고 좀 뚱하고 뽐대는 친구들이 6학년 친구들입니다.(웃음)

김은빈 지역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부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12살스럽다’라고 딱 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발가락 육상천재>의 12살들이 어디 있을법하다고 생각 했지만, 호준이가 하는 ‘나 볼트 형님이랑 통화한다’ 이런 허세는 조금 더 어린 학생들이 하는 행동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미선 연출님은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레슬링 시즌> 청소년극(14세 이상)을 만드실 때와 <발가락 육상천재>에서 12살의 인물을 만드실 때 어떤 차이가 있으셨어요?

서충식 12살 청소년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들이 재미있어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래서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논리적인 창조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 지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늘 고민해요. 움직임, 캐릭터, 언어 등이 지금 동시대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떤 언어를 썼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효과가 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동작도 그렇고. 배우가 연기할 때도 섬세하게 접근해가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처럼 감각적으로 하는 연출들은 좀 힘든 작업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매번 고민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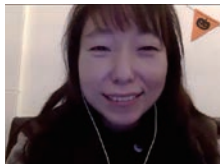
김미선 2년 전 하고는 어떠세요?

서충식 지역 공연에서는 공간도 바뀌어서 변화를 주고 그랬는데, 이번 공연은 초연으로 돌아오고, 극의 중간 중간 텍스트를 통해서 질문거리들을 재미있게 던지려고 해요. 그리고 배우들이 약간은 성숙해져서 놀이성을 더 얻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배우들이 순진난만하게 잘 놀아요. 몸과 체력들은 좀 더 변해가지고 왔는데 정신연령들은 그대로니까, 아마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극장 판에서는 3면 무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우들의 움직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작은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연기가 관객들의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섬세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손서희 작품에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12살 아이들 이랑 진짜 비슷한 게 있다'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김은빈(양지초 교사)



이우정(청구초 교사)

이우정 좀 뭉쳐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친구들이랑 많이 비슷하고요. 일단은 이 친구들이 조금 특별한 친구들이잖아요. 운동부 친구들이니까요. 사실은 운동부 친구가 저희 반에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걸 유심히 보면 빨리 크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이 기술과 체력을 익히고 싶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운동을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육상부 친구들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긴 했었어요.

김은빈 일단 자존심 세우는 거요. 서열이 고학년이 되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서 그걸 전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쯤 되면 체격, 공부,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격차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기도 하고, 당연히 나도 높은 서열에 올라가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작품에서도 그러잖아요. 뒤에서 달려도, 3등이어도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1등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재를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잘 따라 했어?”

“따라 한 거죠. 어른들은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따라 했다고보다는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신 거겠죠. 저는 좋게 봤어요.”

손서희 선생님들께서 연출님께 궁금한 점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것 없으신가요?

이우정 국립극단 청소년극을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렵게 바라보니까 너무 어리게 표현하면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고려를 심하게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표현되면 좀 더 좋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빈 제가 아이들하고 연극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들도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판단해요. '저 정도는 아니죠'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희가 저렇게 해요?' 한다거나. 자기네들이 보기에 맞다, 좀 괜찮다 싶으면 '우리 저렇지? 원래 저러잖아요'라고 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도 아니다 싶으면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지>를 볼 때 저희 반 아이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우리 삶을 많이 표현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제가 애썼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저희가 학원가고 그러는 거 잘 따라 하신 것 같네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잘 따라 했어?' 이랬더니 '따라 한 거죠. 어른들은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따라 했다고보다는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했더니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신 거겠죠. 저는 좋게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따라하는 것을 판단해 본 적이 없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연출님이랑 배우들이 되게 궁금해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본인들은 너무 뿌듯하고 존중하는 듯한 느낌이고 우리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또 어차피 다 제대로 알지도 못할 거면서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손서희 저는 <영지> 때부터 12살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이게 5학년이야, 6학년이야?'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12살 혹은 13살을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정 이 친구들은 청소년인데 '어린 청소년'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특성이 오버랩 되면서 공존하고 있거든요. 아까 연출님이 '중학교 1학년 가면 좀 귀여워지지 않나요?'라고 하셨는데 그 귀여운 측면도 가지고 있고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에 커 보이고 싶은 마음도 같이 뒤엉켜 있어서 자신이 컨트롤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5, 6학년 정도의 학생들인 것 같아요.

김은빈 저도 역시 '어린 청소년'이 맞는 것 같은데 많은 경계선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선택적으로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거나 자기들이 소비자인 상황에서는 약간 어른처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또 어린이날에는 '야, 너희 이제 마지막이네' 이러면 '아니에요. 저희 내년에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시기. 그 두 가지 정체성이 다 본인의 정체성인 거죠. 청소년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린이로 좀 더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시기고 또 그것을 취사선택해도 되는 시기이구요. 그래서 인어군요. 완전히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어 같은 존재가 지금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자신의 경계가 넓어지고 또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본인의 감정에 좀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런 식의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요. 2022.10.25.(화) 18:15-19:30 / Zoom
이야기. 서충식 연출 / 김은빈, 이우정 교사(협력학교)
진행. 손서희 교육감독 / 김미선 PD
편집. 김미선 PD / 김혜연 AD

까칠한 인어가 다시 돌아왔다 〈발가락 육상천재〉 재공연

〈발가락 육상천재〉가 다시 돌아왔다. 2020년 백성호장민호극장 초연에 이어 2년만이다. 재공연에 앞서 9월과 10월엔 충남과 당진과 수원에서 초등학교 관객들과도 만나고 왔다. 이 공연은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열두 살 프로젝트’, 곧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해 기획되었다. 충남 학생교육문화원 대극장 무대에서 초등학교 관객들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새롭다. 거짓말만 하던 호준이가 낚시터에 혼자 남겨졌을 때 관객들은 끝까지 호준이를 응원했다. 이 관객들에게서 많은 힘을 얻었다. 공연의 남겨진 빈틈을 채우는 데에도 큰 힘을 얻었다.

환타, 환상적인 가짜의 맛

“무슨 맛?” 공연의 첫 대사이다. 상우의 초밥집은 육상부 친구들의 아지트다. 아이들은 훈련이 끝나고 상우네 초밥집에 모여 앉아 환타를 마신다. 아이들의 루틴이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켜는 어른들의 모습과 닮았다. 그런데 왜 환타일까? 작가의 대답이 재미있다. 환타의 오렌지 맛은 인위적인 맛, ‘가짜의 맛’이라는 설명이다. 환타에는 진짜 오렌지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오렌지 맛이 나는 향과 색깔을 가졌다는 것이다.

가짜의 맛. 호준이 또한 거짓말이라는 짜릿한 가짜의 맛에 맛들렸다. 신발에 돌이 들어갔다, 운동화 끈이 풀렸다, 똥꼬에 쥐가 났다는 거짓말에 반응이 없자 급기야 인어가 발가락을 먹고 도망갔다는 거짓말까지 한다. 거짓말이 버라이어티하다. 그런데 진짜로 인어가 나타났다. 까칠한 인어다. 푹 쏘는 강력한 맛의 인어다. 대박! 분명 거짓말이었다는 걸 잘 알면서도 호준이는 자기 거짓말에 속는다. 가짜의 맛은 강력하다.

“볼트형! 달리기 하면 변호준이지?”

“볼트형! 내 발가락이 육상선수 중에 제일 길지?”

“볼트형! 인어가 내 발가락 잡아먹었잖아. 내 발가락이 길고 튼튼해서 탐이 났으니까 먹은 거지?”

호준이가 자꾸만 불러내는 볼트형도 가짜다. 그런데 이상하다. 호준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관객들은 그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게 된다. 호준이는 잘 달리고 싶고, 육상천재에게 필요한 긴 발가락을 가지고 싶다. 아이들도 호준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볼트형이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 호준이랑 친할 리가 없다. 호준이의 거짓말은 언제까지 계속 될까? 볼트형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호준이는 볼트형을 그만 떠나보낼 수 있게 될까? 그걸 지켜보게 된다. 호준이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잘 하고 싶은 달리기에서 생애 처음 쓴 맛을 봤다. 호준이는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관객들이 호준이를 응원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다.

김옥란 Kim Ock-Ran

드라마투르그, 연극평론가,

극동대학교 교수

연극 〈트랙터〉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

〈신신방〉 〈발가락 육상천재〉

〈영지〉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위대한 놀이〉 〈국물

있사옵니다〉 외

수상

2018년 여석기 연극평론가상,

2017년 노정 김재철 학술상,

2014년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드라마투르그

부문)



인어 제의극(祭儀劇), 12살 아이들의 꿈지락거리는 사투

인어는 “물고기 반, 사람 반”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존재다. 12살 아이들이 마치 “어른 반, 아이 반”과 같다는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존재다. 기발한 발상이다. 실제 공연에서도 인어는 초등학교 관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취향 저격’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이 인어는 보통 인어와 달리 머리가 생선, 다리가 사람이다.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게 달리는 인어.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싶은 호준이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존재이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호준이는 낚시터에 혼자 남는다. 호준이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들여다보던 바다는 호준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 속에서 튀어나온 인어는, 마치 거울이 좌우를 뒤집어 보여 주듯이, 호준이를 거꾸로 뒤집어 보여준다. 인어는 더 이상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박정민도 이겨준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인어는 상우네 초밥집 장사가 잘 되는 데에 필요한 생선일 뿐이다.

옛날 옛적에 우리 마을엔 아주 맛있는 인어가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인어 이야기. 어젯밤에 엄마가 들려주던 인어공주 아리엘 이야기. 유튜브에서 본 식인 인어 이야기. 샤르르르 녹는 인어 초밥. 샤르르르 샤르르르.

장면전환 랩송 중 하나다. 신화 속의 환상적인 존재였던 인어는 인어 초밥 재료로 모두 잡아먹혀 죽고 말았다. 상상한 신화는 이미 회를 쳐서 먹어버리고, 인간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온갖 쓰레기들만 뱃속에 가득 집어넣은 채 인어는 낚시줄에 끌려 올라왔다. 인어는 매번 “시끄러, 닥쳐!” 큰소리치지만 “사람들은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시무룩하다. 인어는 신성한 신화의 모습이 아니라 틈만 나면 아이들이 칼을 들고 최 처 먹을 궁리만 하는 생선일 뿐이다.

호준이도 인어의 말에 절대 공감한다. “나도야!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호준이는 인어를, 인어는 호준이를 지켜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인어는 호준이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존재다. 언제까지나 호준이 곁에 살아 있을 수는 없다. 신화는 이미 사라졌고, 인어는 싱싱한 횡감으로 도마 위에 놓일 것이다. 호준이에게도 신화의 시간은 지나갈 것이다. 호준이는 어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호준이와 인어의 만남 못지않게 이별 장면 또한 가슴 아프다.

“정말 날 죽일 거야?”

“미안해.”

“배신자.”

인어를 제단에 올려 12살 아이들이 비장한 제의극을 치르게 한 것은 이 공연에서 가장 공 들인 장면이다. 인어를 죽게 만든 〈밤의 여왕 아리아〉 노래 소리와 함께, 인어의 갈라진 배 안에서는 환타와 꽃다발과 찌그러진 페트병 쓰레기들이 나온다. 인어의 뱃속에서는 구불구불 내장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극장을 가득 채운다. 뱃속에 가득 든 찌꺼기들을 모두 꺼내 햇볕에 널고 바람에 말리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장면을 통해, 찌질한 인어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우화극은 그로테스크하지만 신성한 제의극이 되었다. 호준이는 다 비워내고 텅 빈 인어의 배를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 “이제 똥파리도 날파리도 초파리도 아무 것도 못 들어갈 거야.”라고 말한다. 인어는 살아나고 다시 출발선에 선 아이들에게 외친다. “자, 준비! 시작!”

파란만장 12살에 대하여

성유미 Sung Yu-Mi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제정신분석가.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때>의 저자.

솔직히 12살은 애매하다.

애매한 나이여서 잊혀지기 쉽고, 애매하기에 어렵고 복잡하며, 온갖 고민과 욕망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때이다. 이토록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12살의 의미를 나름 애써 세워 가면서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 파워가 간절해지는 시기이다. 알록달록 환타처럼 ‘톡’ 쏘는 맛, 자기만의 ‘컬러’를 갈망하며 아등바등하기 시작하는 나이. 자신의 개성과 고유함을 찾아 심각한 내적 탐구가 피어나기도 한다.

이 나이의 애매함과 고뇌를 누가 제대로 알아줄 수 있을까?

어린이도, 청소년기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12살.

이들은 그동안 자신의 가장 큰 생존 무기인, 어린이 특유의 ‘귀여움’이 점차 바래져간다는 야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12살을 무척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 중 하나다. 특히 유치원생의 큰 특권이었던 ‘유치함’에 대해서도 점점 뻔뻔한 기준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12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마냥 해맑기만 해서는 또래들로부터 배척당하기 십상이기에 일종의 ‘허세’가 필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함부로 ‘어른체’를 하다가는 진짜(?) 청소년기에 진입한 형님들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괜히(사실 12살에겐 억울한 노릇인데..) 어른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기 쉽다. 세상의 온갖 부당함과 만만치 않음을 순서도 없이 톡, 톡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영리한 12살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깨닫게 된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은 은밀하면서도 ‘눈치껏’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런 사정이 있기에 12살이 그 스스로 가능성 있는 ‘도우미’들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고립을 자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비밀은 많아지는데 문제 해결의 버거움은 계속 가중되는 이 때, 가장 이상적인 도피처는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내적 판타지 세계이다. 그 안에서 맘껏 가능성을 꽃 피우고, 치열하게 혹은 신나게 싸우고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며 절절한 로맨스에 빠져들 준비를 하게 된다. 물론 나사가 빠진 듯 짹짹, 킁킁할 수 있는 유머도 필수품이 된다. 무엇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몸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까지 수용하려면 자신의 정신 세계에서 최대한 영토를 확장시켜 놓아야만 한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실에서는 문제 하나하나가 생각처럼 명쾌하게 구분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채로 죄다 뭉뚱그려진 채로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친절하게 차근차근 알려주는 ‘도우미’들이 대개 부재한 상태에 빠진다. 실제 아무도 없어서 라기 보다는, 아이러니하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대상들인 부모나 선생님들과 본격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고,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린다. 그렇기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고 제각각 잘나 보이는 친구들끼리 뭉치는 게 최선으로 보이는 12살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들에겐 아지트가 간절하게 필요하다. 이 안에서 그들만의 끈끈함과 동일시는 ‘의리와 낭만’을 만들어

내지만, 녹록치 않은 경제적 현실이란 것이 이들의 아지트마저 위기에 처하게 만든다. 현실에서 살아낼 힘, 경제적 파워가 없으면 아지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 인식은 당장 돈을 벌 수도 없는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게 되는 걸까?

그들은, 다시 자신을 끼리의 ‘경쟁 무대’에 몰입하게 되고 때로는 합심했다가, 또 어느새 해체되는 지독한 개인주의적 포지션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끊임없이 나만의 개성과 강점, 재능을 발견하고 드러내려는 시도와, 수많은 좌절을 속에서 극복과 도피, 방어적 보상행동을 오가며 성장통을 겪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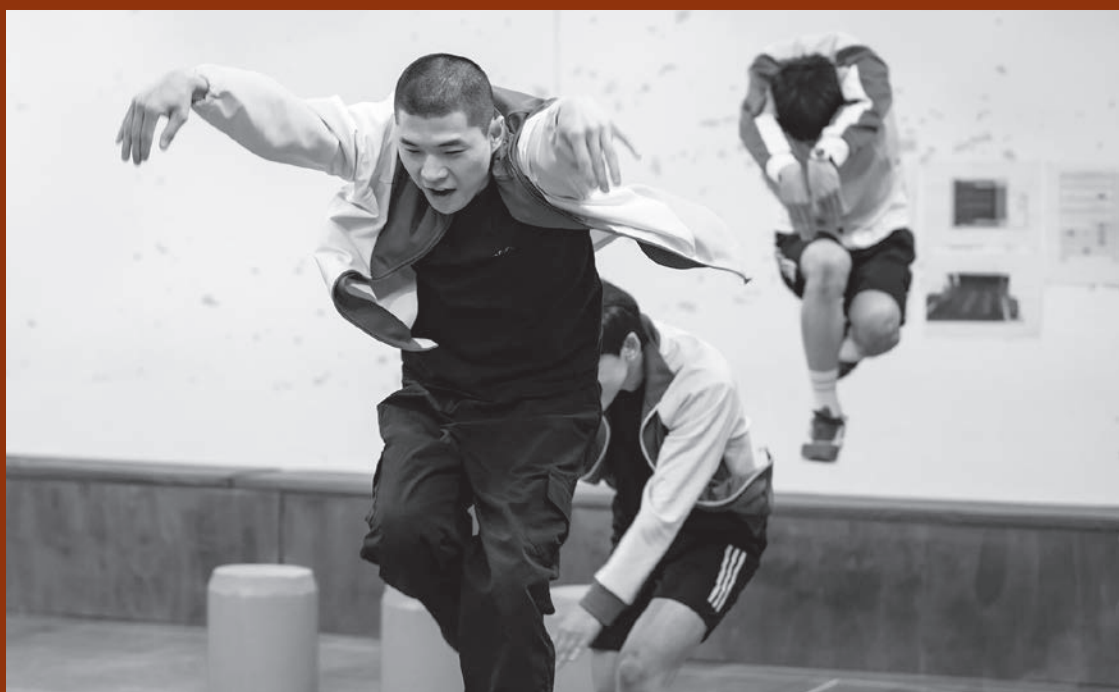
사춘기와 그 예비 단계로서의 12살.

청소년기라는 명칭보다 사춘기青春期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봄’은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사랑과 리비도(sexuality)를 빼고 그 본질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사람의 봄”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함께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 자신만의 개성과 철학이 자라나가는 청소년기를 제대로 지나가기 위해서 그 예비 단계인 12살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현실의 바쁨과 중차대한(?) 문제들에 밀려서 많이, 그리고 꽤 오랫동안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었던 <12살>에 대해 이토록 감각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심지어 재치 만점의 무의식적인 터치까지 가미하여 표현해 낸 청소년극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척 놀랍고 반가울 따름이다.

이 <발가락 육상천재>를 통해 미개화(未開花)된 수많은 12살들의 꽃이 피어나기를, 그리고 사람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각각의 시기들을 재발굴해내는 다양한 창의적 시도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감히 희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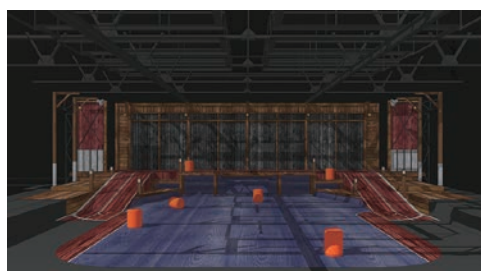




<2020 발가락 육상천재> 백성희장민호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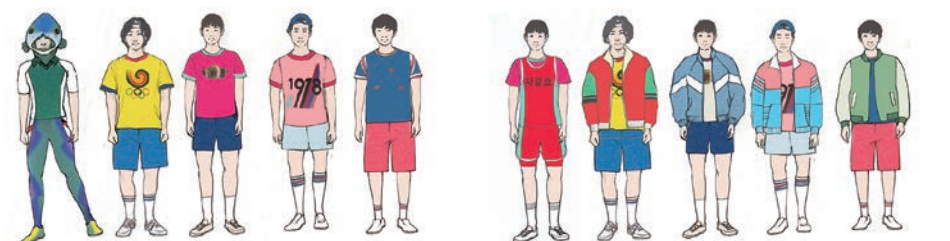
<2022 발가락 육상천재> 지역공연



<2022 발가락 육상천재> 소극장 판



<2022 발가락 육상천재> 지역공연 · 소극장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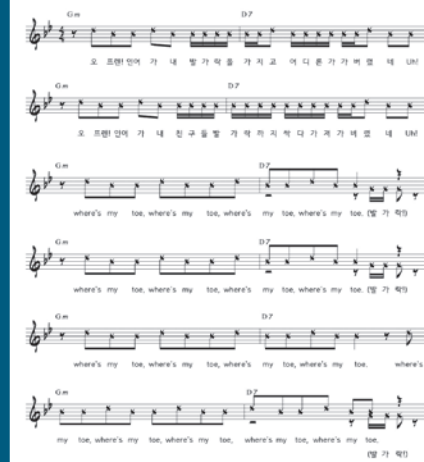


<2020 발가락 육상천재> 백성희장민호극장

인어를 잡으러



Where's my toe



2022 <발가락 육상천재> 청소년 리서치 인어가 말이 돼?

교육감독 손서희

청소년극 창작 과정에서의 청소년 리서치

2022 <발가락 육상천재>에서는 청소년 참여협력 작업으로 12살 청소년에 대해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국립극단 청소년극의 제작 과정 중에는 항상 청소년과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15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두 달 정도의 긴 호흡으로 워크숍에 참여하고 그 워크숍의 내용을 공연팀과 공유하면서, 청소년들은 작품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냉정한 비평가, 그리고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어 줍니다. 매 공연 2주 쯤 전에 오픈리허설을 열어 청소년들을 연습실로 초대해 연습 장면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협력 작업입니다.

한편 2011년 <소년이 그랬다>, 2012년 <레슬링 시즌>, 2019년/2020년 <영지>, 2019년 <자전거도독헬멧을 쓴 소년> 등의 공연 제작 과정 중에는 별도로 청소년 리서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개 작품 속 등장하는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어떤 모습인지,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실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이해하고자 리서치가 이루어집니다.

2022 <발가락 육상천재> 청소년 리서치의 내용과 형식 (1) 사전질문지

그리고 2022 <발가락 육상천재>에서도 청소년 리서치를 통해 12살 청소년들이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내면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번 리서치의 키워드는 '12살의 꿈지락거리는 속마음'입니다. 호준이의 낯스대에 인어가 낯인 것은 호준이의 꿈지락거리는 속마음이 미끼가 되었기 때문일 테니까요.

하지만 리서치라는 형식 속에서 누군가의 속마음에 가닿기가 쉬울 리 없습니다. 우선 갑작스럽고 무리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비록 종이 위에서이지만 단순 문답이 아닌 대

화의 형식으로 12살 청소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한단계 한단계 대화의 태도로써 '이런 생각 해봤어?', '그럴 때 소소올직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 물었고, 청소년들이 '어? 나의 속마음?', '나의 진짜 모습?'을 답하면서 눈동자를 위로 굴러볼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12살 청소년들이 '예, 아니오'나 단어 위주의 단답형이 아닌 대화로서 답을 주었습니다.

(※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답은 26~31페이지에서 일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청소년들의 답을 발췌, 재구성하였지만 가능한 한 원래 대답의 형태를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준이가 인어를 눈앞에 불러낼 만큼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대화의 형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상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질문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깊이가 있는 바다로 상상해 보고, 누구에게나 환히 비치지는 얇은 바다에서부터 오직 나만이 다다를 수 있는 깊은 바다까지 자신의 속마음을 단계별로 바다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질문했습니다.

1. 수심이 얇은 바다의 마음 층위에서는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가장 많이 보여주는 마음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2. 중간 수심의 마음이라면 어느 정도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다를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기준에서 여기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3. 그리고 나만 아는 수심이 깊은 속마음의 바다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 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소리를 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2022 <발가락 육상천재> 청소년 리서치의 내용과 형식 (2) 학교 방문 리서치

청소년 리서치에서 또 하나 고려했던 점은 참여 청소년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맥락이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극 창작과정에서의 청소년 리서치는 단순한 자료 조사나 양적 통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서치 질문의 내용과 그것을 건네는 방식에서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질문을 직접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라포를 형성해 다양한 시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행동하는 리서치' 방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청소년들에게 여러 층위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해 놓고 질문지를 단순 수거하고 리서치를 끝내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서치에서는 질문 내용을 조금 더 연장해, 작품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경험을 맥락화할 수 있도록 2단계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앞서의 질문을 학교에 사전 질문지로 보내어 각자가 대답하기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 질문에 답하도록 한 뒤, 2차 리서치를 위해 서울청구초, 부천양지초, 인천산곡북초 3개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교실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작성한 대답을 스스로 선별해 '속마음 만두'의 재료로 적어 넣고 종이 만두피로 감싸 속마음 만두를 만드는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두를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먹을 수 있는지 등 '요리사가 직접 쓴 메뉴판'을 작성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끄집어져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한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2022 <발가락 육상천재> 청소년 리서치의 시사점과 결론

이렇게 175명의 12살 청소년들에게서 얻은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 그리고 그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마주한 후에 이것을 분류해 12살의 속마음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특정 답지들을 분석하여 12살 속마음의 특징이나 주요 사례를 추출해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답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175명 12살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서치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점은, <발가락 육상천재>에서 호준이가 인어를 불러내고 자갈초 아이들이 인어의 등장과 함께 겪는 일들이 실제 12살에게 말이 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12살의 꿈지락거리는 속마음이 인어를 불러내는 것은 복잡해진 내면의 상징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에 막 진입한 12살이 아동기의 상상 친구를 넘어 내면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진짜로 부딪치는 과정일 것입니다. 답지에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깊은 마음속 바다의 생명체에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마음을 투사하였고('고민하게 만들기', '내마음은 컨트롤해도 자기는 컨트롤하지 못함', '남들을 대답하기 어렵게 하기' 등. 26~31페이지 참고) 무엇보다 이러한 생명체를 상상하고 표현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이와 포스트잇으로 만든 속마음 만두를 '에이, 이게 무슨 만두예요' 하며 거부하지 않고, 흔쾌히 자신의 내면을 꺼내보고 활동에 담아내었습니다. '요리사의 메뉴판'에 시식 규칙으로서,

- 만두의 맛을 평가하지 말 것. 평가한다면 당신은 속마음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
-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속재료 메모를) 다 읽고 나서 배부른 느낌이 날 것이다.
- (나에게) 사연을 털어놓은 사람(만 먹을 수 있음)
- 아무 생각과 말을 하지 않고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부작용은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릴 것입니다. 부작용을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등을 답으로 써 주었다는 점에서도 자갈초 아이들이 인어와 겪는 일들이 진짜 12살의 내적 경험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인어와 만나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 자갈초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지만 특별한 사건 속에서 특별한 아이들이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관객은 호준이와 정민, 은수, 상우 4명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리서치를 통해 얻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성과는 리서치를 통해서 175명의 12살 보통의 청소년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175명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 지면에 소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청소년 리서치의 결과가 공연창작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리서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소개되어, 자갈초 4명과 바짝 마주 앉은 175명의 또 다른 12살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후에 청소년 리서치를 진행할 때 더 고심할 만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청소년 리서치] 12살 마음이 궁금해?

[12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다에는, 어떨 때는 예쁘고 착하게 생겼지만 나쁘고 괴상하게 생겼을 때도 있는, 두 얼굴의 생명체가 살아. 주특기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야. 애는 기분이 긍정적일수록 잔잔한 목소리, 부정적일수록 부정적인 느낌의 목소리를 내.

[12살] 나는 익숙한 것보단 새로운 게 좋아. 새로운 것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을 채워주니까. 내게 가장 익숙한 건? 집, 한 2년쯤 됐지? 그리고 기억의 공간. 그건 몇 달 안 됐어.

[12살] 나라고 편하게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건 아니야. 나도 나를 사회 생활 중이라고. 태생적으로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을 주의하면서 사는 중이야. 내 진짜 모습? 힌트를 주자면 이런 모습?



[12살]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쉽진 않아. 나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 그래서인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내 생각을 잘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 그런 내가 편하게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꽃이 있고 따뜻한 곳이면 좋겠어.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면 혼자 있는 게 편해. 그 때 내 진짜 모습?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솔직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밝게 지내지 못할 거 같기도 해.

[12살] 친구나 가족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는 마음은 화나는 마음이랑 기쁜 마음이야. 화나는 마음이 들 때 '아, 알겠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자꾸 잔소리를 하고 점점 성질을 굽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이 나와. 약간 비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말에 공감을 잘 해줄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내게 비밀을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지는 않을 사람이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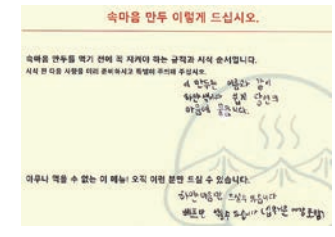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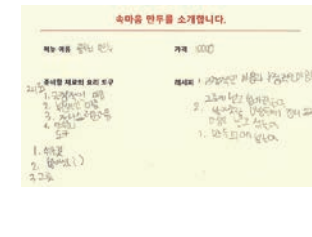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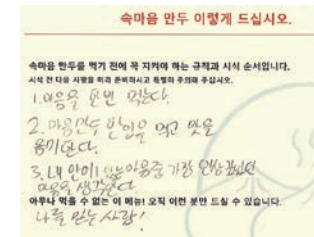
[12살] 내 마음 속 깊은 바다에는 '금쪽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코끼리랑 바다니까 물고기를 닮은 그런 생명체가 살 거야. 다른 생물의 비밀을 먹고 사는 게 주특기야. 개는 먹은 말에 따라서 내는 소리랑 텐션이 달라지거든? 그릉그릉... 그릉그릉!! 거짓말을 들으면 화를 내고, 기분이 좋으면 몸에서 빛이 나. 애 이름은 '금쪽같은 내 물고기'인데 내 마음 속 바다에서는 솔직한 마음을 먹고 살지.

2022 <발가락 육상천재>의 청소년 참여협력팀에서는 12살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각 학교에 사전 질문지를 보냈고 175명의 12살 청소년(초등학교 5~6학년)들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해주었습니다. 사전 질문지 이후에는 청소년 참여협력팀이 교실에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미리 작성했던 답 중에서 중요한 속마음 이야기를 골라 '속마음 만두'를 만들고 자신의 속마음 만두를 안내하는 셰프의 메뉴판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 서울청구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46명
- 부천양지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46명
- 인천산곡북초등학교 5학년 학생 36명
- 창원웅남초등학교 연극부 5학년, 6학년 27명
- 충남당진초등학교 연극부 6학년 20명

청소년 리서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서울청구초 이우정, 부천양지초 김은빈, 인천산곡북초 정희진, 창원웅남초 이주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사전 질문지에 담긴 청소년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보통의 12살 청소년, 그들의 특별한 속마음을 하나하나 듣고 나의 마음과는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 떠올려 보세요.



먼저 리서치에 참여해준 12살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질문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내 마음을 울릉도 바다처럼 투명하고
맑게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답할 것입니다.

서명 _____

바다처럼 깊은 마음속에는 다양한 속마음들이 있어.
아주 깊은 마음속은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지. 여기
는 해수욕장 가까이에 있는 수심이 얇은 바다야.

_____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가
장 많이 보여주는 마음은? _____
그 마음을 보여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_____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는 중간 마음이 사는 바다야. 바닥이 발에 닿지
않아 구명조끼가 꼭 필요한 곳이지. 중간 마음은 약간
의 비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
존되는 곳이다. 이곳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1. _____
2. _____
3. _____

이곳은 제일 아래에 있는 아주아주 깊은 마음이야. 여
기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나만 아는 곳이지. 남들이 상
상하지 못할 아주 예쁜 마음이 살기도 하고 괴상하고
이상한 마음이 살기도 해.

그리고 여기 깊은 마음의 바다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
고 있어!! _____ 어떻게 생겼을까? 글로 써도 되고,
그려봐도 돼! _____ 주특기는? _____ 그 생명체
가 내는 소리가 있다면? _____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은 어떤 게 있을까? _____ 활동 시간대는? _____
그 생명체가 먹고 사는 마음은? _____ 이름을 지어
주자.



이름: 보물상자
먹는 것: 나도 모르는 많은
마음들
주특기: 고민하게 만들기
소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활동시간대: 깨 있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이름: 남보
먹는 것: 솔직한 마음
주특기: 말하기, 반짝이 뿌리기
소리: 편안해지는 노랫소리
활동시간대: 아주 늦은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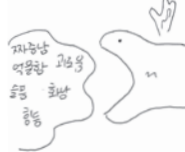
이름: 라벤더
먹는 것: 좋은 마음
주특기: 좋은 기억보단
나쁜 기억을 생각나게 한다.
죄책감을 들게 한다.
소리: '너가 그런 거야,
너 때문이야'
활동시간대: 밤, 낮



이름: 루(가평)
먹는 것: 화남, 슬픔, (사랑)
주특기: 감정 컨트롤,
내마음 컨트롤 해도,
자기는 컨트롤하지 못함.
소리: 끼익, 드룩
활동시간대: 매우 침울할 때,
화가 날 때,
진짜 깊은 생각이 들 때



이름: 마음이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거나 한곳만
팔 때의 마음!
주특기: 한곳을 파기 시작하면
한곳만 집중적으로 파!
늘 삽이랑 통을 가지고 다녀.
한 곳을 팔 때 꼭 필요하거든!
소리: 노래를 부르고 다녀!
활동시간대: 365일! 24시간!



이름: 고래
먹는 것: 나의 슬픔, 짜증남,
억울함
주특기: 나를 안정시켜 줘.
특징: 나만 애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소리: 소리 없이 조용히 행동해.
활동시간대: 엄마한테 혼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나 영화나
책이 너무 슬플 때



이름: 풍금이
먹는 것: 기쁨
주특기: 기쁨을 먹으면
먹을수록 털이 풍성해진다.
소리: 뽐뽐
활동시간대: 기쁨이 많이
나타나는 시간



이름: 시(끄럽고)끈(질긴놈)
먹는 것: 상대방이 짜증나고
당황한 마음
주특기: 남들이 대답하기
힘들게 해. 뭘 상상하든 상대를
한계에 압박하게 만들어!
소리: 아주 시끄럽고 끈질긴
소리
활동시간대: 학교에 있을 때
몇몇 교사 동안!!

<p>Q. 나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게 좋아! 너는 어때?</p>	<p>나는 새로운 것보다 <u>익숙한 게 좋아</u>. 왜? <u>적응이 쉬우니까</u>.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 <u>글쓰는 것. 4년 정도 됐어</u>.</p> <p><u>새로운 게 좋지! 왜? 뭔지 알고 싶어서</u>. 나는 운동이 가장 익숙해. 2년 정도 됐어.</p> <p><u>나도! 왜? 새로운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u>.</p> <p><u>나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재미있고 신나니까! 나에게 가장 익숙한 거? 내 단짝친구! 4년 됐어!</u></p> <p><u>새로운 것도 좋지만, 익숙한 게 안정이 되는데... 난 쉬는 시간마다 그림 그리는 일이 가장 익숙해. 4년쯤 됐나?</u></p> <p><u>익숙하게 좋지. 불편하지 않으니까</u>. 나는 혼자 노래듣는 게 익숙해. 3~4년 됐어.</p>		<p>Q.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 창피한 마음. 누가 아는 게 싫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놀림받을 것 같은 마음. 무서운 마음. 귀여운 마음. 멋있는 마음. 친구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든 적이 있어?</p>	<p>물론 있지. <u>그럴 때는 그 마음을 괜찮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 생각했어</u>.</p> <p>친구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 창피한 마음, 떠올리기 싫은 마음, 누가 아는 게 싫은 마음이 든 적 있어. <u>그런 마음을 들키면 본능적으로 숨겨야겠다</u>라는 생각이 들어. <u>소소오울직이</u>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u>‘아,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했어</u>.</p> <p>나도 비슷한 마음이 든 적 있어. <u>그럴 때 나는 말을 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피해서 물어</u>. 솔직히 <u>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초라해졌어</u>.</p> <p>친구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은 있어. 그럴 땐 <u>최대한 그런 생각과는 관련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u>.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u>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이유까지는... 비밀... 비커즈... 잇이스 마이 시크릿...</u></p>
<p>Q. 나는 누군가와 빨리 친해지는 편이다? 너는 어때?</p>	<p>나는 누군가와 <u>빨리 친해지기 어려워</u>. 하지만 친구가 없지는 않아. 내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u>공감대를 찾는 거야</u>. “그래! 이제 우리 진짜 친해졌다”라고 느꼈던 순간? <u>내 생일 때 진심으로 많이, 제일 먼저 축하해 줬을 때</u>.</p> <p>나는 빨리 친해지는 게 제일 쉬웠어. 나만의 팁? 처음 보는 친구에게는 <u>칭찬을 해주면 좋아</u>. 서로 장난 치거나 번호 교환할 때 이제 친해졌구나 느껴.</p> <p>맞아! <u>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봐</u>. 00야, 안녕? 우와, 너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줘.</p> <p><u>둘이서만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굳이 둘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았던 순간이 생기면, 진짜 친해진 거 같아</u>.</p> <p><u>친해지는 거 쉽지! 새학기마다 친구 사귄 생각밖에 안 한다구</u>.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장난으로 느껴지면 친해진 거야.</p>		<p>Q. 내 비밀을 터 놓을 수 있는 사람은...</p>	<p>입이 무거운지, 거짓말을 치지 않는지, 착한지가 기준이야.</p> <p>친절하고 공감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와 친하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나와 비슷한 성격이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p> <p>첫 번째 기준은, 선을 지켜야 돼. 그걸 넘으면 발끈하니까. 두 번째는 내 장난을 좀 잘 받아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 옆에서 뭐라 말 안하면 괜찮아.</p> <p>나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효율적인 제안을 해주는 사람, 나와 가깝고 오래 지내온 사람(하지만 믿을 수 있어야 함!)</p> <p>결정적인 상황에 내게 호의를 보이는지, 같이 여러 활동을 해 봤는지,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지.</p> <p>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계속 말하는 친구는 아니었으면 해</p> <p>나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면 비밀을 터놓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p> <p>나랑 친해야 돼. 나랑 잘 맞아야 돼. 그리고 센스가 있어야 돼.</p>

2022 <발가락 육상천재> 공연팀은 12살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연습 장면을 보여주고 함께 운동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차례의 오픈 리허설을 소개합니다.

[1차 오픈 리허설] 2022 <발가락 육상천재>는 서울 공연에 앞서, 9월 천안과 당진, 수원에서 공연하면서 각 지역의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지역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9월 2일, 국립극단 청소년극 협력학교인 서울 청구초등학교와

부천양지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선생님과 함께 1차 오픈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대학로 연습실에서 <발가락 육상천재>의 앞부분 연습 장면을 함께 보고 배우들과 참여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했습니다.

청구초 야구부 영준이) 자갈초 4명 중에서 실제로 누가 제일 빨라요? 제가 보기엔 은수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하체 근육이 제일 발달했거든요.

부천양지초 6학년) 아까 기다리면서 무대 위 테이블 위에 ‘인어 00(스포일러)’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 그건 스포야!!! 기억에서 지우도록 해요!!! —— 혹시 인어가 죽어요?

자갈초 상우) 여러분, 환타를 좋아하나요? (절반 정도 손 들) 환타의 매력이 뭐예요? —— 아주 특 쏘고여, 아주 맛있고여, 아주 오렌지고여 아주 그냥 크으!

청구초 6학년) 처음 부분도 그렇고 중간중간 나오는 그... 자갈 어이!!! 어찌구...? 그 구호를 왜 에이스 같아 보이는 1등 정민이가 하지 않고 3등 상우가 하는지 궁금해요. —— 아, 그건 아지트가 상우네 초밥집이라서... 그리고 상우가 목소리가 커서 주장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1등이 전학을 와서 우리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익숙한 상우가 주도해서 구호를 외치는 거죠.

연출님) 오늘 본 장면에서 제일 여러분 같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 인어랑 상우가 뭔가 마음에 들었어요. - 저는 은수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것 같아서 저 같아요. - 아주 천방지축이고, 미쳐 날뛰는 게 우리 반 같았어요.

연출님)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영준이(야구부 5학년 학생)가 보기에 자갈초 아이들은 어때요? 운동부 같았어요? —— 음... 우리 야구부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우리는 원래 주장도 경력이 제일 많거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하고, 또 자갈초 아이들은 운동하는데 진지하지 않고 장난스러운 점이 저희랑 달라요.

[2차 오픈 리허설] 지역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서울 공연을 준비하던 10월 20일, 다시 청구초등학교와 부천양지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과 2차 오픈 리허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계동 국립극단 연습실과 마당에서입니다. 인어와 호준이가 만나고 달리기를 가르쳐 주는 연습 장면을 보고 난 후, 우리도 모두 달리기를 하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2차 오픈 리허설은 자갈초-청구초-양지초의 미니 운동회. 준비 뽀기로 팀을 나누고 팀이름과 응원구호를 짰 후, 가을 날 오후 해가 질 때까지 단체 줄넘기, 상대팀 등에 스티커 붙이기, 이어 달리기를 했습니다. 승리는 임창정 팀. 아쉽게 경기에서 진 청량갈스 팀은 마지막까지 엄청난 구호로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배우 삼촌들이 우리 어린이를 이기려고 너무 과몰입해요!”

“애들아, 아까까지는 자갈초 애들이라면서!”



2번의 오픈 리허설에 참여해 주신 서울청구초등학교와 부천양지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 서울청구초등학교 5학년 송영준, 6학년 김다솔, 박지원, 이건, 이아림, 이채원, 이하늘, 전희준 학생과 이우정 선생님
- 부천양지초등학교 6학년 강시우, 김현준, 이주하, 임호, 최예나, 최경빈, 최은성, 홍성의 학생과 김은빈 선생님

청소년 참여협력팀
손서희, 박진선, 고봉주

정리 및 글: 손서희

2020 발가락 육상천재

20.10.30-20.11.22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2022 발가락 육상천재

22.9.15-22.9.16

충남 학생교육문화원

22.9.24

당진 문예의 전당

22.10.1

수원 SK아트rium

22.11.3-22.11.27

국립극단 소극장 판



22.10.20 <발가락 육상천재> 미니 운동회

작가 김연주 Kim Yeon-Ju

*프로필 11페이지

연출| 서충식 Seo Chung-Sik

극단 주변인들 상임연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교수

연극 <2020 발가락 욕상천재> <레슬링 시즌> <룩산느를 위한 발라드>

<안티고네를 연습하다> <절차상의 오류들> <실수연발> <국물있사옵니다> <죽음, 혹은 아님> <최종면접> 외

드라마트루기

김옥란 Kim Ock-Ran

*프로필 16페이지

무대| 신승렬 Shin Seung-Ryul

연극 <2020 발가락 욕상천재> <섬이야기> <붉은낙엽> <홍평국전> <신신방> <윙키> <어느 날 문을 열고> 외

조명| 이현지 Lee Hyun-Ji

PLUGGED 대표

연극 <2020 발가락욕상천재> <룩산느를 위한 발라드>

무용 <제7의 인간> <푸가 FUGUE>

다원 <포스트 아파트>

음악극 <적로> <조강 환타지아>

의상| 김민우 Kim Min-Woo

연극 <조치원 해문이> <의자 고치는 여인> <2020 발가락 욕상천재>

뮤지컬 <타이거> <짱>

무용 <꼬리언어학> <thank you> <eating spirit> <깍대기>

행사 <2013 평창 스페셜 동계 올림픽 개막식> <18대 대통령 취임식 식전 문화행사> <D'strict & YG 홀로그램 전시>

소품| 이은경(EK) Lee Eun-Kyung

EKCOSTUME 대표

연극[의상] <기후비상사태:리허설>

<불가불가>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콜타임>

<붉은 낙엽> <왕서개 이야기>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우산도둑>

<청년부에 미친 해인이> 외

연극[의상·소품] <트랙터> <더 나은 숲> <영지> 외

연극[소품] <신신방> <2020 발가락 욕상천재> 외

작곡·음악| 조용경 Cho Yong-Kyoung

한양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

연극 <2020 발가락 욕상천재> <룩산느를 위한 발라드> <파경> <산신방> <절차상의 오류들> <용서> <이상한 동거>

<세익스피어의 연가> <레테의 강> <고백> <개가 된 사나이> <메이홀드 번주>

<우르파인> 외

음악극 <사랑은 별처럼> <사랑, 길을

묻다> <사랑이, 별> <한 여름밤의 꿈> 외

뮤지컬 <짱> <관찰야> KBS2 TV

<코파반장의 동화 수사대> EBS

<가족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케이크> 외

거리예술 <STREET ARTS CARAVAN 달갈귀신>

음향| 안창용 An Chang-Yong

연극 <2020 발가락 욕상천재> <신의

아그네스> <국화꽃 향기> <살라메아의

시장> <햄릿아바타> 외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미드나잇

블루> <머더 포 투> <덕혜옹주> <미녀와

야수> 외

움직임| 남궁호 Nam Geung-Ho

호모루덴스 컴퍼니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연극[움직임지도] <신신방> <벚꽃동산>

<돈키호테> <2020 발가락 욕상천재>

<룩산느를 위한 발라드> 외

마임[연출·출연] <2K> <프랑켄슈타인>

<해설이 있는 마임> <4-59번지> 외

거리극[연출·출연] <달갈귀신>

<로빈슨크루섬> <오늘 같은 날> 외

수상 2006 프랑스 미모스 축제초청공연

<4-59번지> 연기상

무대감독| 김민주 Kim Min-Ju

스테이지홀스 대표

연극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외

무용 <신데렐라> <춘향> <호두까기 인형>

<지젤> <Le Baiser> <The B Type> <빛, 침묵

그리고...> <로렌스> 외

조연출| 윤성우 Yoon Sung-Woo

연극[조연출] <2020 발가락 욕상천재>

연극[작곡] <무인도 탈출기> <헬청춘>

예술교육 <소년이그랬다>

음악[작곡] 너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교육감독| 손서희 Sohn Seo-Hee

예술교육리서치 <영지>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교육감독 <트랙터> <2021 소년이 그랬다>

<2020 발가락 욕상천재>

청소년 참여협력| 박진선 Park Jin-Sun

극단 살튀 창작자

예술교육 <2020 청소년극 창작벨트>

<2020 발가락 욕상천재> <소년이그랬다>

<더 나은 숲> <2021 청소년극 창작벨트>

연극 <말괄량이 삐삐 오늘도 맑음>

<오늘이> <사계의 색깔을 찾아서>

<고요의 울림> <꿀강아지> <포맷>

<지수가 누구야>

청소년 참여협력| 곽봉주 Ko Bong-Ju

예술교육 <구리문화재단 예술교육

아카데미 “예술에 물든 아이들”> <경기

꿈의 학교 “노래하고 춤추는 배우”>

전시 <포맷 FORMAT>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외계물질

관찰일지 프로젝트>

출연

김기현 류석호 박창욱 이창민 임모운

스태프

작 김연주

연출 서충식

드라마트루기 김옥란

무대 신승렬

조명 이현지

의상 김민우

소품 이은경

작곡·음악 조용경

음향 안창용

움직임 남궁호

안무협력 손지미

조연출 윤성우

교육감독 손서희

청소년 참여협력 박진선 곽봉주

무대감독 김민주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레이터 김세희

조명프로그램어 김상호

조명팀 송민신 윤진선 이준엽 온지연 서승범

음향팀 안은호 김아람

무대진행 박서현 김형준

의상진행 전요나 한우정

무대제작 쇼먼트(대표 김나리)

소품제작 이케이코스튬(대표 이은경)

전식제작 제이컴(대표 전혁)

의상제작 디세뇨(대표 황연희)

오픈리허설 참여

서울 청구초등학교 김다솔 박지원 이아림 이채원 이건

송영준 전희준 이하늘

부천 양지초등학교 이주하 최예나 최경빈 최은성 한현서

김현준 임호 홍성의 강시우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한지선

마케팅 이현아

온라인마케팅 조영채 오지수

고객관리 김태은

티켓 김보배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대표안내원 김경은 이송희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 박예지 이예본 임도희 최나윤 황수빈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안내원 김지수 고계령 조세찬 최민아 고혜진 김연정

윤예진 김시은 김은송 이소민 한은별 강성준 김정연 노정균

설인화

홍보촬영 그린비(작가 장성용)

EPK영상제작 오슬로프로젝트(대표 이영관)

공연영상제작 연두픽처스(감독 조운수)

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이너 REO1(대표 김리원)

옥외광고 영기획(대표 서성원)

홍보물 인쇄 인타임(대표 김종민)

프로그램북 제작

기획/편집 김미선 김혜연 안희경

그림 김성제

디자인 데저트팜(대표 양으뜸)

줄거리 번역 알리사 김

인쇄 미림아트

기획·제작총괄 김성제

프로듀서 김미선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김혜연

제작진행 안희경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은복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팀장 신민희
 예산·회계·세무 현승은 김수아 김미지
 시설·용역·공사 정병욱
 대외협력·평가 박지민 박예원
 인사·이사회·제도 이민희
 노무·구매계약·정보화·전산 주현우
 비서·복무·복리후생 김시내
 윤리경영·교육 김혜원

공연기획팀

팀장 김옥경
 프로듀서 정채영 이정민 김수현 김정연
 박소영A 윤정민 박성연 박소영B
 하우스·접근성매니저 김나래 임아라

홍보마케팅팀

팀장 박보영
 홍보 최윤영 김태은 이정현 한지선
 마케팅 이현아 이승이 변정원 노소연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티켓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작품개발팀

팀장 정용성
 작품개발·정보관리·창작극개발 한나래
 조유림
 아카이빙·작품개발·정보관리 이슬예
 청년인턴 김가은

무대기술팀

팀장 정광호
 무대감독 나혜민 김정빈 김태연
 제작감독 홍영진 경은주 이승수
 무대기계감독 윤성희
 음향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조명감독 김용주 류선영
 의상감독 박지수
 청년인턴 서동민 박소은
 연수단원 이유리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김성제
 프로듀서·작품개발 김미선
 연구개발·기관협력 손준형
 공연제작 김혜연
 사업기획 독고진
 청년인턴 이송하

2022 시즌단원

강해진 강현우 권은혜 김광덕 김다현
 김명기 김세환 김수향 김시영 김예은
 문예주 박용수 박용우 서지우 이혜미
 정대진 정슬기 신사랑 안창현 윤성원
 이동준 이은정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크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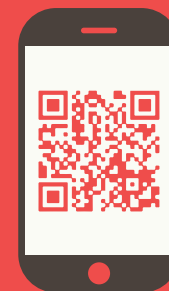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펄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파우스트 엔딩

X의 비극

연극을 내 일상과 가장 가깝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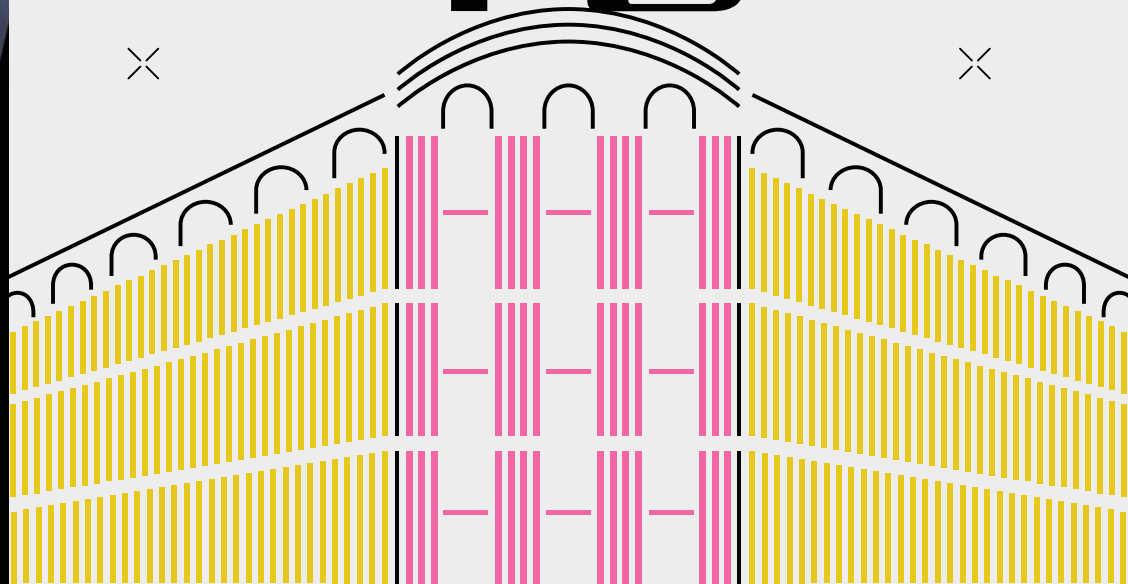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on.ntck.or.kr

소년이그랬다

연극이 주는 진한 감동,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끼고 싶다면?
국립극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립극단 후원



- ✓ 1만원부터 자유롭게
- ✓ 첫 후원 감사 선물 증정(연말 발송)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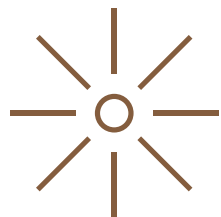
일시 후원



정기 후원

문의
1644-2003

www.ntck.or.kr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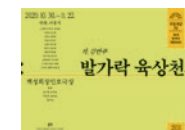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2011년 5월 2일 문을 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공연제작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제작 및 지역 공연, 작품 개발 및 연구,
예술교육이 있다.

창작극, 재창작과 각색, 해외 공동제작,
지역공연 등 매년 2-3편의 청소년극을 올리고
있다. 2011년 <소년이그랬다>를 시작으로 총
28편을 제작, 531회 공연, 전국 46 곳 순회,
총 84,300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지문) 호준은 테이프를 뜯어서
인어의 배에 붙여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